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⑳ 배움의 즐거움



그림 · 박구원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로워진다

늙어서 욕심을 내는 일을 두고 우리는 '노탐(老貪)'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일을 하든 욕심을 부리는 태도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인간에게 탐욕이 없었다면 진즉에 멸족되었지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 문명 시대를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더 나아지고자 하는 욕망, 남들보다 앞서가겠다는 경쟁심. 이런 일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세상은 아름다운 성공담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은, 아니 자신의 처지나 능력을 넘어서는 과욕은 몸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마저도 갉아먹는다. 그러니까 노탐은 꼭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국한된 교훈은 아닌 셈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나 중용(中庸) 같은 말은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준칙이 아닐까?

아주 오래 전 서울에 살 때 어느 날 나는 내가 올해부터 나이가 쉰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팔팔한 대학생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영원히 그 나이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고작 눈을 몇 번 깜박였을 뿐인 듯한데, 공자(孔子)가 말한 지천명(知天命)의 세상에 접어든 것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늙은 것이 아니라고 위로해 본들 충격이 가셔지는 것은 아니다.

그때 나는 쉰 살이 된 기념(?)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자는 엉뚱한 결심을 했다. 이것저것 고민해보다 악기를 배워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모니카나 트라이앵글을 배우겠다면 남들도 비웃을 테니 뭔가 그럴 듯한 것을 찾다가 바이올린에 눈이 가게 되었다. 내 팔 길이보다 짧으니 그깟 거 못할 게 뭐냐며 아주 만만하게 보았다.

그러나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친다는 말을 나는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깨달았다. 복잡한 기법을 익히기에 내 몸은 무디기만 했다. 왜 바이올린을 두고 '악마의 악기'라 부르는지 알았다. 바이올린을 손에 쥔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가고, 지금도 이따금 혼자 가벼운 곡들을 연주해보곤 하지만, 기대보다 소리가 신통찮을 때면 '노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는 자괴감을 어쩔 수 없다.

노탐이 주는 교훈을 금방 잊은 나는 남해에 와서 뒤늦게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빠졌다. 작년 겨울부터 우연찮은 계기로 농악을 배웠다. 남해에 있는 '화전매구보존회' 단원으로 들어간 게 동기였는데, 상모를 돌리고 소고를 치고 발동작과 진법(陣法)을 따라가느라 애를 먹었다. 그래도 조금씩 몸에 익혀지니 재미도 있고, 운동마저 되었다.

다시 저번 달부터는 매구를 익힌 김에 사물놀이에 도전하고 있다. 북을 맡았는데, 그럭저럭 잘 따라가는 편이라 내심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다. 그래도 자꾸 바뀌는 가락이 혼란스러워 나오는 한숨을 감추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멈춰서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사는 고현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바리스타 강습'에도 나가고야 말았다. 커피를 좋아하는 게 이유라면 이유겠다.

매주 두 차례씩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 강습에는 진주에서 '커피 바리스타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홍성빈 선생님(m. 010-6756-2226)이 지도를 맡고 계신다. 실력도 출중하지만, 대개 연세가 많은 수강생 주민들을 흥겹게 만드는 입담도 남달라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도 봐야 하고 실습도 통과해야 한다. 카페 라테를 만들어 표면에 하트 무늬와 나뭇잎 무늬를 그려내야만 합격한다니, 솔직히 큰 부담이다. 딸아이들도 냉큼 따는 걸 보고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 이상한 기하학 무늬만 둥둥 뜰 뿐 하트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기왕 저질렀으니 끝장은 봐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도 강습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누군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는 진리를 읊조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과욕에 빠져 노탐을 부리지는 않는지 실소(失笑)가 나올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강습 때 나보다 나이가 훌쩍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커피 머신을 조작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 배움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작은 자격증일망정 그 일에 집중하고 익히려는 자세야말로 젊어지고 새로워지는 첩경일 것이기 때문이다.

백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외치는 요즘, 나는 죽어도 백 살 근처도 못 가리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망이 없다면 나는 벌써 '산송장'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배움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없지 않은가!

제대로 배우면 번뇌도 사라진다

깨달음도 따져보면 배움의 결과물이다. 어느 때 느닷없이 갑자기 이치를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이를 돈오(頓悟)라 부른다. 말 그대로 '갑자기 깨달았다.'는 뜻이지만, 세상에 근원이 없는 물이 없듯이 깨달음에 '갑자기'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보기에 그럴 뿐이지, 백조가 물 위를 유유히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아래서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는 것처럼, 수행과 정진이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추구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을 것이다.

누구보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뭘 배우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결정난다고 이르신 점은,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그 유명한 비유에서 갈파하셨다.

>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
> **배움 깊어질때 번뇌 사라져**
> **유 · 불 모두 배움 강조해**

그러나 무작정 높은 목표만 세우고 과정을 밟지 않는 배움의 자세도 경계하셨다. 깨달음에 이르는 데 정도(正道)는 없어도, 실천 없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엉뚱한 방법을 고르면 좌절만 안겨줄 뿐이다. 서울을 가자면서 남쪽 길로 내려가면 경기도 땅도 밟지 못할 건 당연한 이치다. '불수반열반약설교계경(佛垂般涅槃略說教誡經)'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흐르면, 마침내 돌을 뚫는 것과 같다. 게을러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내고자 할 때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쉬는 것과 같아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진영 엮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196쪽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자 해서 연신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부처님은 끊임없는 수행정진, 물러섬 없는 노력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고 지적하신 듯하다. 바늘에 실을 꿰기 위해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바늘구멍을 겨냥해야 하듯이 목표를 정했으면 한눈팔지 말고 올곧게 나가야 뭐든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바늘구멍에 실을 꿴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양말을 꿰시던 일이 떠오른다. 눈이 어두워 실을 꿰지 못하시자 항상 내게 바늘과 실을 주시면서 그러셨다.

"백호야! 실 좀 꿰다우."

백호는 내 어릴 때 아명(兒名)이다. 내가 태어난 1962년은 호랑이 해였고, 그 해 호랑이는 백호(白虎)여서 그렇게 불렀단다. 돌아가신 지도 벌써 십 수 년이 다 되가는 할머니. 남해에 내려온 뒤 한 번도 묘소를 찾아뵙지 못했다. 장손(長孫)이라며 금지옥엽처럼 여기시던 할머니의 기대에 나는 반도 미치지 못하고 살지만, 항상 염주를 돌리시던 할머니는 지금 극락왕생하셔서 나를 위해 축원하실 것이다.

쉬지 않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이 고승대덕의 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중생 하나하나 모두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을 얻어 윤회(輪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조차 번뇌의 실마리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배움이 깊어질 때 번뇌도 사라지고 깨달음도 온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니 배울 때가 바로 깨달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유교에서도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배움을 중시하기는 공자님도 뒤처지지 않는다. 유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일을 비유해 '문도(聞道)'라 한다. 공자가 '논어' 이인편(里仁篇)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可矣)"고 한 말에서 유래했다. 그만큼 도를 깨닫는 일이 절실함을 삶과 죽음의 비유로 설파했다.

공자께서 배움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하면 그의 문답집인 '논어'를 펼치면 첫 장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배움에 대한 말씀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좋은 책은, 사람들이 자주 펼쳐보기는 하지만 끝까지 읽지는 못한다. 그러니 영리했던 옛날의 학자들이 핵심 문구는 책의 맨 앞에 두었을 것이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으냐?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와 함께 익히면 즐겁지 않으냐? 내 학문을 남이 몰라주어도 화를 내지 않으니 군자가 아니냐?"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는 배움이란 홀로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럿이 어울려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듯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독식(獨食)보다는 공유(共有)할 때 더 가치와 보람이 있는 법이다. 요즘은 어떤 기술이나 이론을 고안하면 다 저작권부터 챙겨 공유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노력과 고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친 이익추구로 나가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이 된다면 배운 사람의 참된 자세는 아닐 듯하다.

공자는 속수(束脩, 포 열 조각)의 예만 갖추면 누구에게든 자신의 경험과 이치를 가르쳐주었다. 나만 아는 비법 따위는 없었다.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가 바로 공자였고, 그렇게 살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쳤건만, 과연 조선의 유학자(儒學者)들 이 배운 대로 실천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공자가 가장 싫어한 독점(獨占)의 논리에 골몰했던 것은 아닐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박혁(博奕, 노름)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공자는 꾸짖었다. 배우기에 이미 늦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배움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배우기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소설가〉

포항 삼보사 제2기
범음대학 개강 안내

귀의 삼보 하옵니다.
소승은 범음. 범패 국가문화 50호 박송암 스님, 장백응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한 납자로서, 수십 년 동안 산중에서 범음을 수행정진한 승려로서 한국불교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범음의 정통 전문에 충실한 강좌를 열약한 조건에서 제2회로 개설하오니 수행의 본문에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오며 뜻있는 의식과 소리에 관심있고 상구보리 하고자 하는 사부대중께서는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좌내용	상주권공, 3일 영산재
개강일시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강좌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오시는 길 (버스)
버스편은 포항 오천에서 30분 간격으로 '오천시장 정류장'에서 800번 버스 탑승, '하정리 정류장'에서 하차. (10분 소요)

삼보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길 59번길 35 | Tel 054-292-3370 H.P 010-9954-6196

삼보사 범음대학 강주 동곡 종산 합장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2020년 1월 7일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